

“TCO 절감은 기본, 성능향상까지”

DBMS 시장 강자로 성능, 기능, 3rd 파티 호환성 등 다방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오라클이지만 고객사들은 벤더 위주의 오라클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라클 DBM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티맥스의 티베로는 국내에 팽배해 있는 ‘反 오라클 정서’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영진전문대 역시 TCO 절감을 위해 오라클에서 티베로로 원백을 감행했다. 특히 이번 원백은 TAC 기능이 추가된 티맥스 엔터프라이즈 4.0의 최초 사례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 조규희 기자 khcho@imaso.co.kr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전문대학교 학생은 취업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 중심의 주문식 교육을 창안해 4년 연속 정규직 취업률 전국 최우수 대학(교육과학기술부 발표)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2009년에는 전국 전문대 졸업자 중 해외 취업에 성공한 403명 중 133명을 영진전문대에서 배출했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국가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라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영진전문대의 발전

에는 교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학내 IT 인프라를 전담하고 있는 IT 지원센터는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2006년에는 학교 포털을 적용하면서 29억을 투자할 만큼 IT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비효율적 예산 낭비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철칙이라고 강조한다.

영진전문대 IT지원센터 김종규 소장은 “투자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투자하는 반면 예산 낭비는 최소화하는 게 학교의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학내 IT 인프라 핵심 중 하나인 DBMS에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9를 사용해 왔다. 오라클 DBMS는 기능과 성능 면에서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이지만 벤더 위주의 오라클 라이선스, 유지보수 정책은 IT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벤더 종속적 풍토를 개선하고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호환성도 ‘OK’, 인력 지원도 ‘OK’

영진전문대는 DBMS를 마이그레이션하면서 학교 실정과 맞고, 업무 로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알티베이스, 티베로, MS SQL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IT 인력들은 스터디 모임을 갖고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오라클과 사상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알티베이스와 많은 수정이 요구됐던 MS SQL보다는 오라클 사상과 가장 비슷한 티맥스 티베로 엔터프라이즈 4.0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진전문대 IT 지원센터 정보서비스팀 이상용 팀장은 “티베로가 오라클과 사상이 비슷한 만큼 수정 없이 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었다. 특히 오라클 RAC(Real Application Cluster)를 대체할 수 있는 TAC(Tibero Active Cluster) 기능이 탑재돼 있어 기능상으로도 오라클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웹 서버와 WAS로 티맥스 웹 투비와 제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영진전문대는 기존 제품들에 대한 만족으로 티맥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IT 인력에 과다한 업무 부담 없이 DBMS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자 했던 영진전문대는 티맥스의 인력 지원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종규 소장은 “대학 IT 인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티맥스는 프로젝트 초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자사 인력을 상주시켜 IT 인력의 무리없이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호환성’, 단기 프로젝트 완성 가능

영진전문대는 DBMS 전환에 있어서 개발환경에 대한 수정 필요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소스 변경, 데이터 이관의 적절성, 성능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몇 가지 내용의 수정이 필요했다. 우선 JDBC가 변경돼 커넥션을 맺는 부분에 들어가는 클래스 명을 변경했고, LOB(CLOB, BLOB)에 대한 변경은 DML로 되지 않아 JDBC 기능을 사용해 클래스 명을 수정했다. 또한 C/S 프로그램의 경우 네이티브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 ODBC나 OLE-DB 형식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솔루션에 대한 변경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티맥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커스터마이징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영진전문대의 프로젝트의 1차 목표가 TCO 절감이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 이후 성능 면에서도 개선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종규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비단 DBMS뿐만 아니라 서버, 메모리 업그레이드도 함께 이뤄져 티맥스의 성능이 오라클보다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성능이 향상됐다”고 밝히고, “특히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과거보다 TCO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제1의 목표인 TCO 절감은 물론 성능향상까지 이룰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영진전문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홈 페이지와 포털 시스템 등 전환 대상 업무 80% 이상이 JDBC 기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바 인력만으로 변경 수행할 수 있었으며, DB 접속 대부분에 커넥션 풀을 사용해 수정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티맥스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솔루션 업체의 지원과 티맥스와 영진전문대 상호의 긴밀한 협조, 영진전문대 경영진의 전폭적 믿음과 지원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영진전문대학 IT 지원센터 김종규 소장, 이상용 팀장 INTERVIEW

“필요하다면 반드시 솔루션 교체해야”



오라클에서 티베로로 전환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티베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_ 간혹 오라클에서 굉장히 빨리 돌아갔던 쿼리들이 티베로에서 잘 돌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조사 결과 쿼리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개발자들이 일일이 마이그레이션해야 했다. 또한 오라클은 이미 대표 DBMS로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장애 발생 시 인터넷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티베로는 지원이 빠른 반면 손쉽게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향후 티맥스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커스터마이징할 때 3~5명의 직원이 상주해 프로젝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오라클에서 티베로로 원백하려는 IT 담당자들에게 조언한다면. _ 현재는 모든 수정을 완료했지만 TAC가 도입된 첫 번째 사례였던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는 제품을 초기에 도입하는 경우 겪게 되는 통과의례라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보다 손쉽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지만 결과에 만족한다. 특히 DBMS 교체가 프레임워크 자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솔루션 교체가 쉽지 않은 판단이지만 TCO 절감이 기업 내부 이슈인 만큼 필요하다면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보편적으로 IT는 ‘잘 되면 본전’이라는 게 일반인의 인식이다. 일반인들은 IT 인력의 고충을 모른 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만 불만을 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고성능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오라클에서 이제 막 DBMS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티맥스로의 전환은 영진전문대의 입장에서는 모험이었지만 업체 상호 간 공조와 담당자의 지속적 관심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